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土種 弘化社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종과 동내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 전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 龍谷藝家 조기동거사 가족

# 아버지와 2남4녀 佛心-藝心の 도반



◇ 지난해 여름 전국을 무대로 활동중인 용곡 조기동거사의 가족들이 가족 7인전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뒷줄 왼쪽부터 장남 재호, 장녀 정아, 차녀 영랑, 차남 진호씨, 앞줄 왼쪽부터 4녀 정아, 어머니 차영애, 아버지 조기동, 3녀 화영씨.



◇ 장남 재호씨의 고뇌속의 깨우침.



◇ 장녀 정아씨의 '넷것으로부터'.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용곡에가(龍谷藝家), 거침없이 달리는 자동차 공음으로 세간의 소음 가득한 1번 국도와 마주 선 시골마을에 자리한 용곡에가가 보인다. 이곳에서 서예가 용곡 조기동(69) 선생과 여섯 자녀들은 불심(佛心)과 예심(藝心)으로 기묘한 새해를 맞이했다.

전남 화순 북면 용곡리 태생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붓글씨를 시작, 일평생 붓과 더불어 살아온 용곡선생은 평소처럼 농한 원로서예가이자 광주 금광사(주지 증공스님) 신도회장이다. 불우이웃들에게 서슴없이 작품을 쾌척하는 보살심으로 넉넉한 노년을 보내는 예술가 불자다.

"일흔이 다 돼 갑니다. 매년 회향한다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주력하고, 수천가닥의 달이 모인 붓 끝에 힘을 모으고 '반야심경'을 쓰고 있습니다. 99년에도 이러한 마음이 흩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용곡선생의 여섯 자녀들도 아버지의 혼(魂)을 그대로 이어 받은 탓일까. 용곡에가의 기운은 불심(佛心)과 예심(藝心)으로 뒤엉킨 채 예사롭지 않다. 장남 재호씨(42·목포대학교 강사)는 도자기의 일상적 쓰임새에서 벗어나 현대적 마감과 조형성을 살린 도예작품에 매달리고 있다. 거치된 길가의 도자기에 수없이 빗살무늬를 수놓고 혹은 손끝 가는대로 으개놓은 '살아가는 모습' '고뇌 속의 깨우침' 등의 작품에서 모든 유위(有爲)의 법칙에서 벗어나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을 수 있다. 그는 L.A. 북경, 독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초대전을 연 실력파다. 장녀 정아씨(39·전남대학교 강사)는 불교전통 문양을 모티브로 활용, 태고의 신비를 느끼게 하는 현대적인 작품을 즐겨하는 한국화가. 경전, 다라니 등 불교 고문서도 그녀의 작품 소재로 자주 등장한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강의하고 있는 차녀 영랑씨(38)와 삼녀 화영씨(36)는 용곡선생의 뒤를 이어 서예와 문인화에 예술혼을 쏟고 있다. 사녀 성욱씨(34·난곡서예인 원장)는 불화와 분청사기의

为祝表现代佛教新成就在己卯新年吉言

東明藝軒南冬... 純香堂奉銅

萬家太平喜

◇ 민가태평훈(은 가정이 불과 같이 태평하리라), 용곡 조기동거사의 현대불교 독자 불우한 신년 휘호.



▲ 4녀 성욱씨의 지장보살.



▶ 차남 진호씨의 광고 사진작품.

孟浩然如洞連始波不築

落杜牧之如清惠曹妹影

◎ 3녀 화영씨의 명호언에서(孟浩然詩書).

진을 전공하고 있다. 큰어느라 이계화씨(38)도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예술인이다.

옛말에 '문장(文章) 집안에 문장 나고, 장사 집안에 장사 난다'는 말이 있다. 파내림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타고난 재능과 감각만으로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없다. 그만큼 예술가의 길은 험난하고도 고달프다. 부단한 자기모색과 남다른 노력이 보태져야 한다. 해서 많은 예술인들은 험난한 창조와 길에 자녀들이 합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데 용곡선생은 여섯 자녀가 예술가의 길을 택할 때마다 적극적인 지지자였다. 그는 자녀들에게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사당식으로 한문과 서예를 지도했다. '예술적 소양을 기르기에 앞서 무엇보다 예의바르고 참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며 "모든일이 그렇듯 예술 역시 사람이 된 다음에 예술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용곡에가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예술인 가족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가족 모두 금광사 법회에 고백포박 참석하는 독실한 불자이기도 하다. 누가 등미되어 예술가가 되라고 하고, 사물에 가라 한 것도 아니지만 아버지의 예술 세계를 경경하다보니 자연스레 여섯 자녀 모두 불교의 길을 스스로 택해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매일 반야심경을 씁니다. 결코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마음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예술가는 깨끗한 품성을 지녀야 하고, 그 품성의 토양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갈고 닦는 것입니다." 작품활동과 수행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것은 용곡선생의 지론이다.

그래서 그런지 용곡에가 사람들의 작품에는 가족의 사랑과 믿음이 한호흡으로 일궈져 한가정의 예심과 불심의 극치를 만끽케 한다.

"서로의 예술세계를 철저히 존중하고 이해해주는게 관례화돼 있어 가족들은 자유분방하게 자신의 영역을 개척할 수도 있고, 또 서로의 예술혼도 나눌 수 있습니다."

모친 차영애씨의 회갑을 맞아 마련했던 '회갑기념 가족전'에서는 용곡선생의 '금강경', 장남 재호씨의 '고뇌 속의 깨우침', 사녀 성욱씨의 '지장보살' 등의 작품들이 한자리에서 하모니를 이루었고, 당시 예술가 및 일반 가정에도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가족의 끈끈한 유대감과 불심으로 피안의 세계, 회엄의 세계를 빛낸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eou@buddhapia.com)



◇ 40년간 붓끝에 불심(佛心)과 예심(藝心)을 모은 원로서예가 용곡(龍谷) 조기동씨(69).

## ■ 가족작업장 '용곡에가' 집안전체가 전시장 주민들엔 문화공간

용곡선생과 그 자녀들이 최근 전남 나주시 남평 수원리에 지은 용곡에가는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여 작품에 몰두하고 싶어했던 소망을 실현한 공간이다. 아버지와 여섯 자녀들의 그림과 글씨 그리고 도자기들이 어우러져 집안 자체가 하나의 전시장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 지역주민들에게도 활짝 열려있는 문화공간이다.

용곡에가는 당초 용곡선생의 고향인 화순에 세워질 계획이었으나 산속으로 들어가면 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남 나주시 남평읍 갈나무 농장부지 5백평을 확보하고, 수개월간의 공사 끝에 지어졌다.

용곡에가에는 용곡선생의 문화생들이 공부하는 20평 규모의 서예원, 대작(大作)도 가능한 1.5부세 가스가마실을 비롯, 벽면이 유리로 처리된 8평공간의 소규모 전시실 겸 차 마시는 공간이 있다. 또 30여평의 도예공방도 갖췄다. 암실을 갖춘 20평 규모의 스투디오도 서예원 옆에 자리하고 있다. 정원에는 갈나무 10그루와 상추며 쪽가지 자라고 있고, 장남 재호씨의 도예작품 15점이 전시되어 있다.



◇ 용곡 조기동거사의 가족은 최근 남평 수원리에 '용곡에가'라는 가족전시실·작업장을 마련했다.